

반찬값도 오름세...식탁물가 '꿈틀꿈틀'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외식물가가 잇달아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가격 인상 움직임이 밥상물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업계의 선두에 있는 CJ제일제당이 햇반 등의 가격을 인상키로 한 가운데 다른 식품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CJ제일제당은 3월1일부터 즉석밥과 캔햄, 냉동만두, 어묵 등의 제품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품목은 4가지로 ▲햇반 ▲스팸 ▲비비고 왕곰자 ▲삼호 부산어묵 등이며 총 54개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

품목별 평균 인상률은 6~9%에 달한다. 그러나 어묵 등 일부 제품의 경우 15% 가까이 오르는 것도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인상이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밝혔다. 햇반의 경우 쌀값이 전년 대비 20% 이상 오른 상황이며 캔햄과 냉동만두의 재료인 돼지고

식품업계 선두 CJ제일제당 햇반 등 가격 상승 원재료값 상승 요인 꼽지만 최저임금 인상 감안

기 가격도 10% 인박 인상했다는 것이다.

햇반과 어묵의 경우 2012년, 캔햄과 냉동만두의 경우 2014년에 인상한 바 있어 앞서 가격을 인상한 시기도 꽤 됐다는 점도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원재료값 상승을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내걸고 있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잇달아 오르고 있는 점도 내심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식품업계 역시 가격 인상의 시기만 기다려왔을 것이라는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외식업계는 이미 이 같은 가격 인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말부터 롯데리아와 KFC 등 패스트푸드점들이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맥도날드와 맘스터치 등도 인상에 동참했다.

또 신선설농탕과 늘부부대찌개, 고봉민감밥, 봉구스밥버거, 썬브웨이 등 각종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격을 인상했다.

더욱이 커피전문점인 커피빈코리아도 원가인상 요인을 들어 아메리카노 가격을 300원 올렸고 대표적인 음료인 코카콜라 역시 이달부로 콜라 등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4.8% 인상했다.

이처럼 외식업계에 이어 식품업계도 가격 인상 움직임에 부응하면서 당분간 밥상물가는 전반적인 인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업계에 있는 동원F&B의 경우에도 연유나 야채 등 원재료값이 상승한 만큼 어묵에 한해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사조대립의 경우에도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른 동종업계 기업들 역시 아직 인상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가격 인상 흐름에 동참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오뚜기의 경우에는 앞서 지난해 11월 참치캔과 즉석밥 가격 등을 평균 5%, 9%가량씩 인상한 바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별로 품목에 따라 가격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저가항공 수요 급증에 '하늘길' 과포화

국토부, 대안찾기 부심

저가항공 수요 급증 여파로 '하늘길'이 과포화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국제공항마다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인

안전국제공항 슬롯은 82회, 제주국제공항은 34회다. 시간당 항공기가 뜰 수 있는 용량이 각각 82회, 34회라는 뜻이다.

◇LCC 국제선 여객 급증... 슬롯 늘려달라

지난해 항공여객은 1억9861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LCC 국제선 여객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LCC 국제선 수송여객은 전년 대비 41.9% 증가한 230만 2100명으로 집계됐다.

에어서울은 국제 여객 증가율이 2016년 대비 59.4%로 가장 높았다. 티웨이항공 62.1%, 제주항공 41.2%, 에어부산 35.6%, 진에어 29.6%, 이스타항공 21.3% 등의 순이었다.

이는 대한항공(-0.6%)과 아시아나항공(-3.8%) 등 국적 대형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수송이 부진한 실적을 낸 것과 대비된다. 대형항공사들의 전체 실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이처럼 저가항공을 이용한 해외 여행 수요가 늘다 보니 LCC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슬롯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국내 주요 공항에서 남은 슬롯이 부족하다보니 항공편을 증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슬롯 포화문제, 해결될까?

슬롯 포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신공항 건설 등 공항 수용능력 자체를 늘리는 수 밖에

없다고 국토부는 강조한다. 슬롯 자체가 모자란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은 오는 2023년 제2터미널(T2) 확장공사와 제4활주로를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4단계 확장을 완료한다. 이렇게 하면 슬롯 포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제주·김해공항 등 상당수 공항에서 슬롯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해신공항은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반영해 오는 8월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제주 2공항은 입지 선정 타당성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국토부, '슬롯의 효율적 조정' 연내 발표

국토부는 슬롯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LCC들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기존 업체(대형항공사)들은 가지고 있는 슬롯을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며 "어떤 식으로 슬롯을 배정하는게 효과적인 검토하고 있는데, 방안은 연말까지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LCC 업계가 항공 수요 급증을 이유로 슬롯 배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는 불리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국토부 한 간부는 "LCC 항공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시간대를 달라고 한다"며 "인천공항은 야간이나 아침 7시 이전에는 슬롯이 있다. 그 시간대를 놔두고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기체가 늘어난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LCC들이 공격적으로 항공기 재를 많이 들여온다. 그래서 비행기가 뜰 노선이 필요하고, 계속 많이 띄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수요가 증가해 공급이 늘어난 건지, 공급이 늘어서 수요가 생긴 건지는 몰음표"라고 말했다.

뉴스스

신형 쉐타페 · 렉스턴 스포츠 인기...중형 SUV '벚꽃 대전'

국내차업체, SUV 라인업 강화

현대차의 신형 쉐타페와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등 올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기대작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올 봄은 중형 SUV들의 각축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도 최근 계속된 SUV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내수 시장이 전년 대비 축소된 반면 SUV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미니밴 등을 제외한 SUV 판매량은 46만6443대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했다. 차 10대 중 3대가 SUV였던 셈이다.

다만 지난해 소형 SUV가 시장을 점령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중형 SUV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쉐타페,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등 볼륨모델



의 신차효과가 덕분이다.

올 봄 SUV 시장에서 판매를 이끌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신형 쉐타페다. 현대차는 지난 21일 신형 쉐타페를 공식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신형 쉐타페는 4세대 모델로 전작 출시 6년 만에 나온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로 출시 전부터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혔다. 사전 계약 기간이었던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보름 남짓한 시간동안 1만4243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

다.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도 출시한 달 만에 계약 건수가 1만대를 돌파하는 등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쌍용차는 최근 몇 년간 출시한 티볼리, G4 렉스턴에 이어 렉스턴 스포츠까지 출시해 SUV의 명가의 명맥을 이어나갔었다는 점이다.

렉스턴 스포츠는 국내에선 생소한 피업트 형태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로 인기를 얻고 있다. G4 렉스턴과 동등한 사양임에도 가격대가 더 낮은 데다 저렴한 자동차세 역시 장점이다. 오픈형 데크가 있어 레저 활동과 오프로드 주행에 강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2년 연속 중형 SUV 판매 1위를 차지한 중형 SUV의 강자 기아자동차의 쏘렌토 역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더 뉴 쏘렌토 넘버원 에디션 출시했다.

르노삼성의 중형 SUV QM6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만 2만 6737대가 판매돼 누적 생산량 10만대를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시된 가솔린 모델의 반응이 좋다.

뉴스스

대부업계 "최고금리

아래로 갈아타세요"

6만명에 금리 인하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8일부터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 대부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20곳은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이하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중 신와대부·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8개 대형 업체는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부업체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부금융협회는 약 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주들은 해당 업체에 유선 또는 청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해당 대부업체들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SMS,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뉴스스

오늘 Lotto 제 795회차 당첨결과 (2018년 2월 24일 추첨)

3 10 13 26 34 38 + 36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1	1,714,977,000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2	50,711,686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423	1,297,61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1,043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25,105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간: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역영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